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荊釵記〉의 비교 연구*

- 삼자의 비교를 통한 상관관계 규명 작업을 중심으로 -

이 복 규**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모본 〈古本荊釵記〉와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상관관계 |
| II. 원작 〈荊釵記〉와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비교 | 1) 기존 가설의 문제점 |
| 1) 〈荊釵記〉 이본의 현황과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소속계열 | 2) 새로운 가설과 방증 자료 |
| 2) 모본 〈古本荊釵記〉와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간의 차이 | (1) 새로운 가설 |
| 3) 〈왕시봉전〉과 〈王十朋奇遇記〉간의 차이 | (2) 새로운 가설의 방증 자료 |
| | IV. 맺음말 |

I. 머리말

근래 새로 발굴된 초기 고소설¹⁾ 가운데 〈왕시봉전〉이 있다. 발굴 당시에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복규, 『새로 발굴한 초기 국문·국문본소설』, 박이정, 1998.

는 창작국문소설로 알려졌으나, 중국 회곡 <荊釵記>(그중에서도 <古本荊釵記>)의 번역임이 밝혀졌다.²⁾ 아울러 이 <왕시봉전>은 이른바 『慎獨齋手澤本傳奇集』에 실린 한문본 <王十朋奇遇記(왕시봉기우기)>³⁾와 이본 관계라는 사실도 보고되었다.⁴⁾ 이 연구를 통해, <왕시봉전>이 원작에 충실한 번역임에 비하여, <王十朋奇遇記>는 좀더 적극적인 개작의식이 작용한 개작본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한국문학에서 중국회곡을 수용한 양상을 고찰하는 논문⁵⁾을 통해, <왕시봉전>의 원작인 <荊釵記>의 국내 수용양상 및 <왕시봉전>의 문학사적 의의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王十朋奇遇記>·<왕시봉전>의 개작양상과 개작 경로를 당대 傳奇소설의 판도 안에서 좀더 상세히 검토하는 성과도 보고되었다.⁶⁾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내 중국회곡 연구자들의 참여하에, 중국측에서 이루어진 <荊釵記> 이본 연구 성과⁷⁾가 처음 소개⁸⁾됨으로써, 이들 소설본이 고본계열에 속하는 게 확실하다는

- 2) 박재연, 「<왕시봉전>, 중국회곡 <荊釵記>의 번역」, 『왕시봉전·荊釵記』,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999.
- 3) 이 작품의 우리말 발음을 '왕십봉기우기'로 할 수도 있고 '왕시봉기우기'로 할 수도 있다. 정학성 교수는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서울: 삼경문화사, 2000), 270면 각주 8번에서, 사재동 교수의 충고를 받아들여 '왕시봉기우기'로 부르고 있으며, 필자도 이에 동조한다. 하지만 조희웅의 저서 『고전소설 이본목록』·『고전소설 작품연구 총람』·『고전소설 문헌정보』(서울: 집문당, 1999~2000)에서는 '왕십봉기우기'로 표기하고 있다.
- 4) 정학성, 「王十朋奇遇記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8, 한국고소설학회, 1999, 27~295면.
- 5) 성호경, 「한국문학의 중국회곡 수용 양상 연구」, 『성곡논총』 31, 성곡학술문화재단, 2000, 1~48면.
- 6) 정길수, 「절화기담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및 「<王十朋奇遇記>의 개작 양상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19(서울: 한국고전문학회, 2001), 177~206면 참조.
- 7) 傅惜華, 「荊釵記南戲的作者與版本問題」, 『戲劇論叢』 第一輯(中國戲劇出版社, 1957), 192~207면; 錢南揚, 《戲文概論》, (木鐸出版社1981), 84~86면, 金寧芬, 南戲研究變遷(天津教育出版社, 1992), 215~235면; 俞爲民, 「南戲荊釵記的作者與版本考述」, 『宋元南戲考論』(商務印書館, 1994), 59~88면.
- 8) 오수경, 「南戲 <荊釵記>의流傳與小說本의出現」, 『中國南戲國際學術研討會 발표문』(浙江省 溫州, 2000.8); 김영, 「荊釵記 研究」(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사실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국문학과와 중문학계의 비상한 관심 가운데 이들 삼자간의 관계가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 가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 글은 선행 연구성과를 전폭 수용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다음 두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씌어진다.

첫째, 국내에서 유통된 국문본소설 <왕시봉전> 및 한문본소설 <王十朋奇遇記>와 그 원작으로 밝혀진 고본계열의 <荊釵記>는 대단락 · 소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되며, 장르상 · 문체상 · 분량 · 사건전개 및 등장인물 등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최근의 국내 논문 및 중국측의 논저를 통해서 그 일단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전모를 소상히 비교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모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荊釵記> ·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의 상관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삼자간의 비교 작업 결과를 토대로 좀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가? 기존의 가설은 그 나름대로 개연성은 있으나, 해명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뒤따르고 있는 형편이므로, 새로운 가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주자료로 활용하는 작품의 원전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荊釵記>는 毛晉 編, 『六十種曲』(北京: 中華書局, 1990)에 실린 <荊釵記>⁹⁾(이른바 『古本荊釵記』)를 대본으로 삼았다. <왕시봉전>은 전계한 필자의 『새로 발굴한 초기 국문 · 국문본소설』,¹⁰⁾ <王十朋奇遇記>는 정학성 교수의 전계서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에 실린 것을 대본으로 삼았다.

9) 『六十種曲』에 실린 <荊釵記>는 박재연 교수가 『왕시봉전 荊釵記』에서 영인해 소개한 暖紅室本 <荊釵記>와 같다.

10) <왕시봉전>의 선명한 사진 자료는 필자의 홈페이지(<http://www.seokyeong.ac.kr/~bkyi/>) 중 <참고자료실>에 올려놓은 것을 참고할 수 있다.

II. 원작 〈荊釵記〉와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비교

1) 원작 〈荊釵記〉 이본의 현황과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소속계열

〈荊釵記〉의 이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까지 모두 9종¹¹⁾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이본은 대단원의 결말 처리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계통으로 나뉜다는 것이 모든 학자의 한결같은 결론이다.¹²⁾ 남녀 주인공이 배 안에서 만나는 이른바 ‘舟中相會’ 화소를 보유한 〈王壯元荊釵記〉계열(〈原本荊釵記〉계열)과 道觀에서 만나는 이른바 ‘道觀相逢’ 화소를 보유한 〈古本荊釵記〉계열이 그것이다. 거기 비추어 보았을 때,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가 명백하게 〈古本荊釵記〉계열에 속한다는 사실은 박재연 이래 정학성·정길수·오수경 등의 연구자들이 거듭 밝혀 왔다.

따라서 〈原本荊釵記〉와 〈古本荊釵記〉간의 차이를 다시 비교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두 이본의 차이를 아주 전체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아직 중국에서나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필자가 별고¹³⁾를 통해서 소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왕시봉전〉·〈王十朋

11) 김영, 앞의 논문, 12면 참조. 일부 소장·소재처는 필자가 확인한 것을 추가하기도 하였음.

(1)〈新刻原本荊釵記王壯元荊釵記〉 2권, 明 嘉靖 姑蘇葉氏刻本(『古本戲曲叢刊』 및 『全明傳奇』 수록) (2)〈新刻出像音注節義荊釵記〉 4권, 明 萬曆前期 金陵唐氏富春堂刻本 (3)〈重校古荊釵記〉 2권, 明 萬曆後期 金陵繼志齋刻本(북경도서관 소장) (4)〈古本荊釵記〉 2권, 明 萬曆後期所刻 屠赤水批評本(『古本戲曲叢刊』 수록) (5)〈定本荊釵記〉 2권, 明末 汲古閣刻本印 『六十種曲』本 (6)〈荊釵記〉 2권, 暖紅室繡刻汲古閣本 (7)〈李卓吾先生批評古本荊釵記〉, 明 萬曆後期刻本(북경도서관 소장 및 『全明傳奇』 수록) (8)〈節義荊釵記〉 4권, 明 萬曆13년 金陵世德堂刻本(日本 阿波國文庫 소장) (9)〈摘彙奇妙戲式全家錦囊荊釵〉 2권, 明 嘉靖 徐文昭編輯 進賢堂梓行(스페인 聖勞倫佐圖書館 소장)

12) 어느 학자의 견해를 들어도 마찬가지겠으나 한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蔣一拂, 『古典戲曲存目彙考』 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5면. “此戲現存版本, 以影鈔士禮居舊藏明姑蘇葉氏刻本『王壯元荊釵記』, 爲一系統; 以繼志齋屠赤水評『古本荊釵記』, 李卓吾評『古本荊釵記』, 汲古閣原刊本, 及清暖紅室刊本, 又一系統, 而以葉刻較近古.”

13) 이복규, 「荊釵記의 대표 이본 연구」, 『국제어문』 23(서울: 국제어문학회, 2001),

奇遇記>는 대단락 차원에서 분명히 <古本荊釵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나, 극히 일부에서는 <原本荊釵記>의 요소도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말미에 나타나는 錢貢元의 재등장 현상¹⁴⁾이 그것인데, 이는 <古本荊釵記>에는 없는 것이다. <왕시봉전>에서는 “당인 되서다가 효도 지극히 흐”였다고 함으로써, 매우 간략한 서술이긴 하나, 분명히 전공원에 대해 다시 언급하였고, <王十朋奇遇記>에서도 전공원을 모셔와서 살았다고 함으로써 <原本荊釵記>와 상통하고 있다.¹⁵⁾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첫째,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의 형성에 <古本荊釵記>와 <原本荊釵記>가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제47단락까지는 <古本荊釵記>를 따르다가 제48단락에서는 <原本荊釵記>의 결말 처리를 일부 수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점적인 지위를 지켜온 <古本荊釵記>의 끝맺음을 따르되, <古本荊釵記>의 결말처리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原本荊釵記>의 결말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가 <古本荊釵記>의 거의 일방적인 영향하에 이루어졌으며, 일부 나타나는 <原本荊釵記>계열적인 양상은 <原本荊釵記>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古本荊釵記>에는 나타나지 않는 ‘전공원의 재등장’은 효도 관념이 작용한 결과 또는 작품 전반부의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인물인 전공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용자층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첨가된 것일 뿐 <原本荊釵記>와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한문본 <王十朋奇遇記>에서는 전공원만이 아니라 시종 부정적인 형상으로 등장했던 계모 최씨가 눈멀어 죽은 후일담까지 소개한 것을 보면, 주인공 가족에 관한 한 그 일생의 귀결 양상까지를 추적해 보여주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原本荊釵記>에서 전공원의 재등장 양상과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의 그것은 차이가 있다.

201~232 참조.

14) <原本荊釵記>에 나타나는 전공원 부부의 재등장 대목에 대해서는 이복규, 같은 글, 227면 참조.

15) <왕시봉전> 제23~24면 및 <王十朋奇遇記> 제10~12면(정확성, 앞의 책, 118~120면).

<原本荊釵記>에서는 왕시봉 부부가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부녀 상봉 형태로 전공원의 재등장이 실현되어 있으나,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에서는 왕시봉 부부가 상봉한 '이후에' '모셔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개연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原本荊釵記>와 <古本荊釵記>이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국내소설본의 담당층이 얼마든지 <原本荊釵記>와 <古本荊釵記>를 둘다 향유한 토대 위에서 이들의 내용을 적절히 배합하여 소설본을 파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한편 통용본이었던 <古本荊釵記>의 영향하에 소설본을 파생하는 과정에서, 장편회곡의 단편소설화에 따른 과감한 생략을 위주로 개작하되 우리의 윤리의식이나 서사적 필요성에 입각해 보완·첨가하다 보니,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原本荊釵記>와 닮은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설령 전자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해도, <古本荊釵記>와 <原本荊釵記>가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저본 구실을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단락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분명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는 <古本荊釵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분명하다. 제1단락에서 제44단락까지야 <原本荊釵記>나 <古本荊釵記>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어느 것의 영향을 받은 차이가 없겠지만, 내용에 차이가 보이는 제45단락과 제46단락을 보았을 때 이는 뚜렷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古本荊釵記>에만 있는 두 개의 단락은 <古本荊釵記>에만 나오는데, 이 단락이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에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열을 따지자면 <古本荊釵記>계열임이 확실하다. 기왕에 거론된 '舟中相會'(原本荊釵記)나 '道觀相逢'(古本荊釵記)이나 하는 데에서 <古本荊釵記>와 같이 '道觀相逢'으로 되어 있는 점뿐만이 아니라, 제47단락의 '배로 초청'(原本荊釵記)이나 '집으로 초청'(古本荊釵記)이나 하는 데에서도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는 '집'으로 되어 있어 대단락과 마찬가지로 <古本荊釵記>와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제48단락의 소단락 중 <原本荊釵記>에만 있는 '전공원의 재등장'은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에도 있어 양자의 친연성을 엿보게 한다. 그렇다고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전공원 재등장' 화소를 막바로 <原本荊釵記>의 영향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古本荊釵記>를 토대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原本荊釵記>의 영향이 없이도, 자체적인 필요성, 예컨대 孝觀念이나 서두와 결말의 대응관계를 조성하려는 서사의식 등이 작용해 이 소단락이 덧붙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는 대단락 및 소단락의 양상에서 <古本荊釵記> 계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해 <古本荊釵記>의 거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이루어졌음이 확실해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이지만 단 한 개의 소단락(‘전공원의 재등장’ 화소)에서는, 비록 결과적이긴 하나, <原本荊釵記>의 요소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2) 모본 <古本荊釵記>와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간의 차이

앞 장의 작업 결과,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는 <古本荊釵記>의 계열로서 <古本荊釵記>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장의 목표는 앞 장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가 모본 <古本荊釵記>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소상히 밝혀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둔다.

그런데 이 삼자간의 차이는 이미 몇몇 연구성과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정학성 · 정길수 두 연구자의 글은 삼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당 부분 잘 밝혀놓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학성 · 정길수 두 연구자가 각각 규명한 것에도 필자가 추가로 확인한 사항을 종합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한 다음, 중요한 차이점들을 적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¹⁶⁾

16) 이 표를 작성하는 데 서경대 김성민 교수, 한양대 오수경 교수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에 거론한 정학성 · 정길수 두 연구의 연구성과의 도움도 컸음을 밝혀둔다.

<표> <古本荊溪記>(이하 '古荊溪')・<왕시봉전(이하 '왕시봉')・<王十朋奇遇記(이하 '王十朋')의 비교표

단락	대단락・소단락	古荊溪	왕시봉	王十朋
1	서두 a.작품의 전체 줄거리, 주요등장인물과 사건, 주제 소개(남주인공:溫州의 王十朋(여주인공: 錢玉蓮) b.작품의 주인공과 배경 소개(남주인공:온주'의 왕시봉)(여주인공:전옥련(가시) b'.작품의 주인공과 배경 소개(남주인공:太原의 王十朋(여주인공:全玉蓮(養母:成母)	a 王十朋 錢玉蓮	b 왕시봉 전옥련	b' 王十朋 全玉蓮
2	同學단체인 王十朋・王士宏・孫汝權이 溫州府 堂試를 준비하기 위해 講學하다.	○	×	×
3	堂試에서 王十朋이 장원급제하다.	○	×	×
4	錢流行(錢貢元)의 생일을 축하하다.	○	×	×
5	전공원(錢貢元(全恭元)이 왕시봉을 사위삼으려 구혼하다. a.중매의 이름: 許文通 b.중매의 이름: 없음.	a 錢貢元	b 전공원	b 全恭元
6	王十朋의 모친이 전공원의 집에 荊釵를 聘物로 보내다. a.왕시봉이 당설이다가 청혼을 받아들임. b.왕시봉이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임.	a	a	b
7	孫汝權이 중매를 통해 전공원 집에 구혼하다. a.중매자: 張媽媽 b.중매자: 전공원의 누이 c.중매자: 계모 崔씨	a	b	c
8	王十朋의 형차와 손여권의 금비녀를 놓고 딸의 뜻을 물기로 하다. a.물든 사람: 錢貢元 b.물든 사람: 고모(전공원의 누이)	a	b	a
9	전옥련이 王十朋과의 혼인 의사를 글히다.	○	○	○
10	孫汝權의 혼인을 재차 권유하다. a.권유자: 계모(姚氏) b.권유자: 고모(전공원의 누이)	a	b	×

단락	대단락 · 소단락	古荊釵	왕시봉	王十朋
11	전공원 집에서 전옥련을 王十朋에게 시집보내기로 결정해, 전옥련이 시집을 가다. a.張媽媽가, 옥련이 계모(繼氏) 말을 안 들겠다고 한다며 이간질을 하여 집안에 분란이 생기자, 당황한 전공원이 서둘러 혼인을 결정하고, 전옥련은 친모의 영전에서 눈물을 흘린 후 떠나면서 계모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나, 계모는 받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음. b.화가 난 계모(崔氏)가 택일도 않고 말에 태워 전옥련을 시집보냄. c.화가 난 전공원과 계모가 날도 기다리지 않고 말에 태워 전옥련을 시집보냄.	a (계모: 繼氏)	b (차모姓: 없음)	c (계모: 崔氏)
12	전옥련이 시집으로 들어간다. a.왕시봉 모자가 전옥련을 맞아들이는 상황을 대화와 함께 자세히 보여줌. b.'전옥련이 婦道を 잘 닦고 시모를 잘 모셨다고'만 서술함.	a	×	b
13	王十朋이 과거보러 가다 a.왕시봉이 과거보러 상경하자, 전공원이 전옥련과 그 시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함께 살도록 함. b.왕시봉이 과거보러 상경함.	a	a	b
14	王十朋은 장인의 도움으로 과거보러 가다. a.전옥련 교부가 전유생 집에 오고 장인의 도움을 받아 왕시봉이 과거보러 감 b.장인의 도움을 받아 왕시봉이 과거 보러 갔음(제22 단락에서 언급됨).	a	×	a'
15	과거 보러 가는 왕시봉을 餞送하다.	O	×	×
16	다른 이도 왕시봉처럼 상경하다 a.동학 王士宏·孫汝權 등이 王十朋과 동행하여 길을 감. b.孫汝權도 상경하여 왕시봉이 묵는 집에 손님으로 들어감.	a	b	×
17	王十朋이 장원급제하다. a.왕시봉이 킬등, 왕시봉이 이등을 함. b.왕시봉은 장원급제하고 손여권은 낙방함. c.왕시봉은 장원급제하고 孫汝權은 낙방함.	a	b	c
18	전옥련이 王十朋을 그리워하다.	O	×	×

단락	대단락 · 소단락	古荊釵	왕시봉	王十朋
19	王十朋이 승상(재상)의 請婚을 거절하다. a.왕시봉이 万俟卨상(왕시봉전·정승)의 청혼을 거절한 결과, 승상의 노여움을 사서 왕시봉이 고향에서 가까운 饒州餘姚(요주판관)에서 輿地인 潮陽의 첩판(조양판관)으로 좌천당함 a'.왕시봉이 '정승'(성명 없음)의 청혼을 거절한 결과, 정승의 노여움을 사서, 요주판관에서 다른 판부(뒤에서 '조양'으로 밝혀짐)로 보내짐. b.왕시봉은 급제와 동시에 '朝陽'판관에 제수되었고, 왕시봉이 청혼을 거절하자 宰相(성명 없음)이 무안해 하며 혼사를 포기함.	a (潮陽)	a' (조양)	b (朝陽)
20	王十朋이 집에 문안편지를 띄워 인편에 보낸다. a.편지내용과 인편: 급제하여 요주 부임예정, 고부 상경 요망. 공문 배달원에게 맡기니 손여권이 배달원을 술먹으라 내보낸 후 편지를 훔쳐봄. b.편지내용과 인편: 급제하여 요주판관 부임예정, 고부 상경 요망. 고향(溫州) 사람에게 술먹여 맡김. c.편지내용과 인편: 급제하여 조양첩판으로 부임예정, 고부 상경 요망. 손여권이 전달을 자청함.	a	b	c
21	孫汝權이 왕시봉의 문안편지를 離婚狀(아내는 버리니 노모만 상경하기 바람)으로 변개하다.	○	○	○
22	편지를 받은 전옥련의 집에서 파란이 일어나고, 남편이 그럴 리 없다며 옥련이 부모를 설득·위로하다. a.전공원이 왕시봉의 배은망덕과 배신을 원망함. b.부모 말 듣지 않은 탓이라며 계모가 옥련에 꾸짖함.	a	b	a
23	전공원이 孫汝權의 말만 듣고 王十朋의 편지 내용을 사실로 여기다.	○	○	○
24	계모가 재차 옥련에게 손여권과의 혼인을 강요하나 거부하다. a.계모가 재차 옥련에게 손여권과의 혼인을 강요하나 거부당함. b.계모가 손여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손여권과의 혼인을 권유하나 거부당함.	a	b	b
25	錢載和(전스화·준자夏)가 임지에 부임하려 배를 타고 가는 도중, 꿈에 신령이 나타나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해 의녀로 삼으라는 지시를 받다. a.구출자의 신원: 福建按撫使 錢載和 b.구출자의 신원: 복건태수 전스화 b'.구출자의 신원: 福建員 全自夏	a	b	b'

단락	단락 · 소단락	古荊釵	왕시봉	王十朋
26	錢載和(전스화 · 全自夏)가 물에 뛰어난 전옥련을 구해 義女로 삼다. a.왕시봉의 행방 파악과 옥련의 소식 전달차 파견된 執事의 이름: 李成 b.집사 파견 대목: 없음	a	b	b
27	王十朋이 어머니와 아내 전옥련을 그리워하다.	○	×	×
28	王十朋의 모친이 전옥련의 사망 소식에 슬퍼하며 京都로 아들을 찾아 떠나다.	○	×	×
29	전공원은 딸 玉蓮이 죽자 후처를 원망하다. a.전공원이 후처를 원망함. b.전공원이 후처를 원망하고, 孫汝權은 張媽媽와 다름.	b	×	×
30	전옥련이 투신한 후 왕시봉의 어머니가 상경하다. a.王十朋의 어머니는 전옥련을 위해 제를 올리고서 길을 떠남. b.머느리가 죽자, 의지가 없어진 왕시봉의 어머니는 서울로 아들을 찾아감.	a	b	×
31	王十朋이 모친으로부터 옥련의 의사 소식을 듣고 슬퍼하다. a.왕시봉이 슬퍼함. b.왕시봉이 혼절함.	a	b	×
32	錢載和(全自夏 · 전스화)가 饒州(朝陽)에 사람을 보내 王十朋의 소식을 묻다.	○ (饒州)	○ (요주)	○ (潮陽)
33	王十朋이 꿈속에서 玉蓮을 만나보고 나서, 제사를 지내다.	○	×	×
34	饒州(朝陽)에서 王검판의 病死 소식이 전해오다. a.요주검판의 성명: 王士宏 b.요주검판의 성명: 왕사공 b'朝陽판관의 성명: 王自恭	a	b	b'
35	王十朋은 潮陽에서의 5년간의 善政으로 승진하다. a.승진내용: 吉安太守 b.승진내용: 복주군수(복주원) b'.승진내용: 福州刺史(福州員)	a	b	b'
36	孫汝權이 혼약을 이겼다 하여 錢流行(錢貢元)을 고소하나 王十朋이 溫州府推官(함께 급제한 周璧)에게 편지를 보내 孫汝權을 벌하게 하다.	○	×	×
37	전옥련이 향을 태우며 기원하다.	○	×	×

단락	단락 · 소단락	古荊叙	왕시봉	王十朋
38	王十朋이 吉安府에 도착, 장인장모를 모셔오게 하고 아내에게 세사지낼 준비를 하다.	O	×	×
39	王十朋이 사람을 보내 장인장모를 모셔오도록 하다.	O	×	×
40	冬至 佳節에 王蓮이 의부모께 문안을 여쭙다.	O	×	×
41	장인장모가 王十朋의 임자로 떠나고 錢流行(錢貢元) 누이 張媽媽가 전송하다.	O	×	×
42	王十朋과 그 모친이 전옥련의 부모를 맞이하다.	O	×	×
43	복건안무사 전재화(전스화, 全自夏)가 왕시봉·전옥련의 혼담을 꺼냈다 거절당하다. a.尙書 鄧謙을 통해 王十朋에게 혼담을 꺼냄. b.전스화(全自夏)가 직접 王十朋에게 혼담을 꺼냄.	a	b	b
44	전옥련과 왕시봉이 재 지내러 간 곳에서 지나치다 다툰 모습에 서로 의아해하다. a.재 지낸 곳(道觀): 玄妙觀 a'.재 지낸 곳(절): '선묘관' b.재 지낸 곳(절): 吉相寺	a	a'	b
45	전옥련이 재 지내러 갔다가 만난 사람을 생각하다 전재화(전스화·全自夏)에게 들키다.	O	○	○
46	전재화가 왕시봉을 초청하고, 왕시봉이 연회석상에서 형차를 보고 진상을 알다. a.초청한 장소: 배 b.초청한 장소: 집	b	b	b
47	(1)잔치 자리에서 왕시봉과 전옥련이 만나다 a.전재화 부인의 초청에 의해 고부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부부·부녀의 상봉이 이루어짐. b.부부의 상봉만 이루어짐. c.부부의 상봉만 이루어지는데, 전옥련이 그 동안 겪은 고초에 대하여 길게 토로함.	a	b	c
	(2)후일담 a.王十朋은 福州知府로 승진하고 食邑 四千五百戶를 하사받았고, 錢玉蓮은 貞淑一品夫人, 王十朋의 어머니 張氏는 越國太夫人에 봉해졌으며, 선친 王德昭는 天水郡公으로 추증됨. b.왕시봉은 무한히 높이 되고, 옥련은 부인이 되며, 장인 모셔다 효도를 지극히 함. c.깨모는 이미 눈멀어 죽었고, 아버지를 모셔다 養父와 함께 섬겼으며, 왕시봉의 아들들도 모두 장원하고 자손이 번성하며 문호가 빛남. 이를 대신 王玠元이라고만 전함.	a	b	c

위 <표>에 나타난 바를 보면, 삼자는 전체적인 줄거리 및 중심인물 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삼자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표에 나와 있으므로, 특징과 상관관계를 타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이들을 중심으로 적시하기로 한다. 먼저 모본 <古本荊釵記>와 국내소설본(<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간의 차이부터 제시하고, 이어서 <왕시봉전>과 <王十朋奇遇記>간의 차이점을 보이기로 한다.

첫째,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장르적인 차이이다. <古本荊釵記>는 희곡으로,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는 소설 장르로서의 관습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古本荊釵記>가 지닌 희곡적 특색은 무엇인가. 희곡은 기본적으로 무대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하는 문학 양식이므로, 무대화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구성된다. 그래서 臺詞, 무대지시문인 地文, 사건의 구성단위이자 장면 전환을 나타내는 幕 등이 그 필수 요소를 이룬다.¹⁷⁾ <古本荊釵記>에도 이런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예컨대 제48척의 서두¹⁸⁾에서 '外上'이나 '淨上' 등은 地文의 구실을 한다. 外나 淨이란 각색¹⁹⁾이 '무대 위에 올라온다'는 무대 지시문이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해당 배역들의 臺詞다. 幕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맨앞에 제시된 '齣'이다. 그런데 중국 고전희곡 작품은 이런 일반적인 면모 외에 한가지 특징을 더 지니고 있다.唱的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 그것이다.²⁰⁾ '紫蘇丸'이란 唱曲名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해당 대목의 대사를 할 때는 그 악곡으로 부르라는 주문이다. 그럴 경우 그 창곡에 따라 부르는 대사는, 일반적인 의미의 대사라기보다 노랫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古本荊釵記>의 모든 척은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잠극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古本

17) 서연호 외, 『한국대표희곡강론』(서울: 현대문학, 1993), 15면 및 볼프강 카이저, 김윤섭 역, 『언어예술작품론』(서울: 대방출판사, 1982), 295~271면 참조.

18) 제48척 團圓: 「[紫蘇丸] [外上] 若認此荊釵. 其中可宛轉. [淨上] 安撫開華宴. 相招意非淺. [生上] 侯門宴請來. 催赴跨青驄. [外] 蒙君不棄. 蜗居門戶生光彩.」

19) 중국 희곡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을 '生', '淨', '丑', '外'(이상 남자 각색), '旦'(여자 각색의 통칭), '末'(공연 시작할 때 관중들에게 극의 줄거리나 주제를 소개하는 각색) 등 각색명을 따라 표현하고 있는데, 인물의 성명을 바로 제시하는 소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양화석, 『중국희곡』(서울: 민음사, 1994), 395-417면 참조.

20) 오수경, 宋元南戲研究(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2), 58면 참조.

荊釵記>는 다분히 다른 傳奇작품과 마찬가지로 ‘읽기 위한 회곡’²¹⁾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고 하지만, 소설과 비교하면 완전한 회곡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에서는 이와 같은 회곡적 장치가 제거되어 있다.²²⁾ 여느 소설과 다를 바 없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는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荊釵記>는 연극으로 상연할 수 있도록 회곡적 양식으로 구성됨으로써 다분히 ‘보여주기’ 위한 연행물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면,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는 어디까지나 ‘읽기’ 위한 독서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왕시봉전>의 경우,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로만 전개되는 대목²³⁾도 있어 회곡적 흔적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현상일 따름이지,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소설로서의 장르적 성격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둘째, 문체의 차이이다. <古本荊釵記>는 구어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노래로 부르는 대목은 詩이지만 대화 부분은 완전히 구어체이다. 고문이 아니라 백화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古本荊釵記>를 완전히 해독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 고전회곡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고문에도 밝아야 하고 백화문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古本荊釵記>가 구어체로 되어 있는 것은 무대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표출되는 회곡 장르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는 문어체로 되어 있다. 대화 부분도 다분히 문어적이다.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들어서 수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소설 장르이기에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선택한 것이 자연스럽다 하겠다. 한문본 <王十朋奇遇記>의 경우는 우리 말 어순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극단적인 문어체를 구사하고 있다 하겠다.

셋째, 작품 분량의 차이이다. <古本荊釵記>는 위의 대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두 47개의 대단락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장편이다. 이

21) 오수경, 같은 글, 225면 참조.

22) 성호경, 앞의 글, 27면에서도, 비록 <왕시봉전>에 한정된 논의였으나,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3) <왕시봉전> 제22~23면에 나오는 ‘전스화’와 ‘왕시봉’간의 대화 부분이 그 예이다.

에 비해 <왕시봉전>은 29개의 단락, <王十朋奇遇記>는 27개의 단락만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축약되어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단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분량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글자수로 계산해 보면 그 점이 명확해진다. <古本荊釵記>의 본문 글자수를 세어본 결과 약 42,000자이다. 이에 비해 <왕시봉전>은 7,000여자, <王十朋奇遇記>는 2,446자이다. 일반적으로 한문을 국문으로 번역할 경우 3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왕시봉전>과 <王十朋奇遇記>는 거의 같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荊釵記>와 <왕시봉전> 및 <王十朋奇遇記>의 차이이다.

넷째, 원작은 사건전개와 등장인물이 복잡한 양상을 띠나, 소설본은 단순화²⁴⁾함으로써 차이를 보인다. 상당수의 사건과 등장인물들을 생략·축약하고 있다. 예컨대 딸의 혼사를 걱정하던 전공원이 왕시봉의 과거 장원급제 소식을 듣자 중매를 보내는 대목이라든가, 손여권이 전공원 일가가 혼인을 빙자하여 자신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관아에 고발함에 따라 전옥련의 자살사건에 대한 심리가 벌어져 온주부 추관이 周璧이 심리한 결과 손여권의 죄상이 드러나 杖刑에 처해지는 대목, 계모와 張媽媽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목 등이 <古本荊釵記>에는 들어있으나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에서는 빠져있다. 사건만 줄인 것이 아니다. <古本荊釵記>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던 인물들이 생략되었다. 처음에 혼사를 중매하던 許文通, 전공원의 집사로서 왕시봉에게 옥련의 실종 소식을 전하러 상경한 李成, 판관 周璧, 왕시봉과 전옥련의 재결합을 주선한 상서 鄧謙 등이 모두 생략되었다. 그 대신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에서는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해 밀착된 서술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왕시봉과 손여권의 관계에서 보이는 차이이다. <古本荊釵記>에서는 친구관계로 묘사되어 있으나,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에서는 그저 전옥련의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朋友有信이란 윤리를 철저히 강조하고 실천하던 우리 나라 풍토에서는, 친구를 곤경에 빠뜨리는 손여권의 행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남남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4) 정학성, 앞의 책, 287면 참조.

여섯째, 왕시봉이 옥련과 상봉하기 직전 부임지의 차이이다. <古本荊釵記>에서는 '吉安'으로 되어 있으나,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에서는 '복주(福州)'로 되어 있다. <古本荊釵記>에 복주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나, 마지막 단락에서 황제의 명에 따라 '복주지부(福州知府)'로 임관되는 데에서 등장하므로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와는 양상이 다르다. 이 점은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가 <古本荊釵記>의 계열이면서도 특수한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²⁵⁾

3) <왕시봉전>과 <王十朋奇遇記>간의 차이

<왕시봉전>과 <王十朋奇遇記>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학성·정길수 두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서 상세히 밝혀 놓았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성과와 위에 제시한 비교표에 나타난 바를 중심으로 중요 사항만을 간략히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등장인물의 성명 표기가 다르다. <왕시봉전>에서는 '왕시봉', '전공원', '전스화(복건원)', '왕스공(요주판권)'으로 나오는데, <王十朋奇遇記>에서는 '王十朋', '全自夏(建州刺史)', '王自恭(潮陽判官)'으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둘째, 王十朋의 출신지가 다르다. <왕시봉전>에는 溫州로 <王十朋奇遇記>에는 太原으로 되어 있다. 온주는 浙江省, 太原은 山西省에 각각 소재하는 실제 지명들이다.

셋째, 전옥련 養母의 존재 여부에서 다르다. <왕시봉전>에는 養母가 나오지 않는데, <王十朋奇遇記>에는 숙모가 養母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온다.

넷째, 손여권과의 혼사를 강요하던 주체가 다르다. <왕시봉전>에서는 계모와 함께 전옥련의 고모가 등장하고 있으나, <王十朋奇遇記>에는 계모(崔氏) 혼자 그 악역을 담당할 뿐 고모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섯째, 왕시봉이 과거 보러 갈 때 장인(錢貢元)의 도움을 받은 여부 면에서 다르다. <왕시봉전>에는 언급이 없는데, <王十朋奇遇記>에서는 <古本荊

25) 정학성, 같은 책, 284면 참조.

釵記>와 마찬가지로 장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여섯째, 승상의 作奸의 유무 면에서 차이가 있다. <왕시봉전>에는 정승이 자기 딸과의 혼인을 거절한 왕시봉을 체직시키는 것으로 나오는데, <王十朋奇遇記>에서는 무안해 하며 혼사를 포기할 뿐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는다.

일곱째, 왕시봉의 처음으로 임명된 관직이 다르다. <왕시봉전>에서는 ‘요주 판관’, <王十朋奇遇記>에서는 ‘潮陽判官’으로 되어 있다.

여덟째, 전옥련이 투신한 후, 의지가 없어진 왕시봉의 어머니가 상경하는 대목의 유무 면에서 차이가 있다. <왕시봉전>에는 해당 대목이 나오나 <王十朋奇遇記>에는 언급이 없다.

아홉째, 전옥련과 왕시봉이 상대방을 위해 재 지낸 장소가 다르다. <왕시봉전>에서는 ‘선묘관’²⁶⁾, <王十朋奇遇記>에서는 ‘吉祥寺’로 되어 있다.

열째, 계모에 대한 권선징악적인 결말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왕시봉전>에서는 계모의 후일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王十朋奇遇記>에서는 악행을 저지른 계모가 눈이 멀어 죽었다고 서술하였다.²⁷⁾

Ⅲ. 모본 <古本荊釵記>와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의 상관관계

1) 기존 가설의 문제점

<古本荊釵記> ·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학성 · 정길수 두 연구자에 의해서 각각 일정한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항에서는 그 가설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항에서 필자의 의견을 개

26) 이복규, 『앞의 책』에서 ‘선묘관’으로 판독했는데, 字形을 다시 살펴본 결과 ‘선묘관’이 맞으므로 수정한다.

27) <왕시봉전>과 <王十朋奇遇記>간의 同異點 검토 및 개작 양상이 지닌 소설사적 의의 등에 대해서 정학성 · 정길수 두 연구자가 각각 앞의 논자들을 통해서 거듭 보고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서술하는 데 두 연구자의 연구성과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둔다.

진하기로 하겠다.

먼저 정확성 교수는 <荊釵記>·<왕시봉전>·<왕시봉기우기> 삼자간의 同異點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는 특수한 同種의 <荊釵記> 이본을 함께 저본으로 하여 각기 다른 작가에 의해 소설로 윤색·개편되었거나, ㉡<荊釵記>의 특정 이본을 저본으로하여 어느 한 작품이 소설로 개편되어 일체화된 후 다시 다른 한 작품이 앞선 작품을 번역·개작하며 이루어졌을 가능성²⁸⁾”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필자 나름으로 표현하자면 ㉠은 ‘同種異本으로부터의 독립발생설’이고 ㉡은 ‘선후관계설’이다. 정확성 교수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라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²⁹⁾ 그러면서 제3의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두 소설본이 무시할 수 없는 특수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성립된 어느 한 소설본을 읽은 작가가 이를 저본으로 하되 원작 극본을 참고로하여 또다른 소설본을 다시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제3의 가설은 타당성이 가장 적다고 생각한다. 원작 극본을 참고했다면, ‘錢貢元’을 ‘全恭元’으로, ‘錢載和’를 ‘全自夏’로, ‘王士宏’을 ‘王自恭’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표기상의 오류를 범할 리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확성 교수가 확정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데 대해 공감한다. ㉠으로 보아도 ㉡으로 보아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이본의 영향관계를 가장 잘 짐작할 수 있는 고유명사 표기만 해도 다음 표에서처럼 착종상을 보이고 있어 삼자간의 관계는 결코 단선적인 영향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이 ㉡⑥⑦의 인명 표기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어느 한 이본을 눈으로 본 기억을 토대로 개작하거나,

28) 이 두 번째 가설의 증거중의 하나로 정확성 교수는 ‘孫汝權’의 표기가 원작과 일치하는 점을 들어, ‘이것은 적어도 작가가 한글본만을 읽고 이를 다시 한문본으로 번역 개작하지는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앞의 책, 286면)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손여권’이란 발음을 듣고 이를 한문으로 적을 때 ‘孫汝權’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적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 손씨는 물론 어느 성씨라도 ‘여권’이란 이름의 한자표기는 ‘汝權’이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9) 정확성, 앞의 책, 287면.

옆에 두고서 개작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차이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일이 아닐까? 변안 또는 토착화하려면 <금오신화>처럼 아예 다른 성명을 택할 일이 지, 성은 물론 이름마저 유사한 발음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항목 \ 이본	古本荊釵記	왕시봉전	王十朋奇遇記
① 남주연공의 출신지	溫州	온주	太原
② 남주연공	王十朋	왕시봉	三十朋
③ 여주연공	錢玉蓮	전옥련개시(전옥련개)	錢玉蓮
④ 전옥련 부친	錢貢元	전공원	全恭元
⑤ 혼사 방해자	孫汝權	손여권	孫汝權
⑥ 전옥련 구출자	錢載和(福建按撫使)	전스화(복진원)	全自夏(建州刺史)
⑦ 王十朋 대신 부임한 사람	王士宏(饒州僉判)	왕스공(요주판권)	王自恭(朝陽判官)

이런 의문을 가지고 판단해 보전대, 정확성 교수의 가설이 지니는 한계는, 소설본의 작가가 원천으로 삼은 것이 記述物³⁰⁾이었으리라는 전제에 너무 얽매었던 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대안은 다음 항에서 개진하기로 한다.

정길수 씨도 일정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처음에는 <王十朋奇遇記>가 <荊釵記>의 개작소설이며 <왕시봉전>은 <王十朋奇遇記>의 개작번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가,³¹⁾ 곧이어 수정하는 견해를 내놓았다. 새로운 논문³²⁾에서 정길수 씨는 <荊釵記> ·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 이들 삼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의 언급이 그것이다.

30) 정확성 교수의 책에서 시종 '이본'이란 용어만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31) 정길수, 철화기담 연구-19세기 애정전기 전통의 계승과 변용(서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9), 84면의 각주 35번 참조.
 32) 정길수, 「王十朋奇遇記의 개작 양상과 소설자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19(서울: 한국고전문학회, 2001)

먼저 漢文과 白話 양쪽에 능통하여 중국 회곡을 능숙하게 해독하던 사대부 내지 역관 중의 누군가가 『荊釵記』를 한문문언소설로 개작하고 이것이 유전되어 지금의 <왕십봉기우기>에 이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한문소설이 다시 국문으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중국 회곡으로부터 한문문언으로의 '번역'이 용이해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개작자가 애정전기의 문체를 덧씌웠을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인다.

또 하나, 『荊釵記』가 먼저 <왕십봉전>의 모본이 되는 국문소설로 축약개작되고 다시 <왕십봉기우기>로 漢譯 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기소설 특유의 문체가 동원된 자료를 두고 볼 때, 국문소설의 漢譯 과정에서 이와같은 적극적인 개작이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다음 장에서 논의될 <五倫全傳>의 序文에 드러나듯, '口演'을 거쳐 기록으로 정착되는 16세기 소설 향유의 한 형태를 염두에 두고 보면 국문 모본이 선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다.³³⁾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 나름대로 위에 제시된 정길수 씨의 견해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荊釵記>→<한문문언소설모본>→<王十朋奇遇記>
→<왕십봉전>
②<荊釵記>→<국문소설모본>→<왕십봉전>
→<王十朋奇遇記>

정길수 씨는 위 인용문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함으로써 더 이상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유보함으로써 정확성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확성 교수의 견해가 <왕십봉기우기>와 <왕십봉전>의 관계를 선후관계로 단정한 것과는 달리, 이들간에는 선후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되, 그 각각의 모본과는 선후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여 한결 융통성있는 견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길수 씨의 가설이 인정되려면 모본과 현전하는 이본들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모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검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정길수 씨의 가설은 정확성 교수의 가설에 비하여 좀더 융통성은 지니게 되었으나, <記述物>

33) 정길수, 같은 글, 197~198면.

記述物〉의 도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확성 교수의 견해와 동질적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원작과 개작본간에 존재하는 표기상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2) 새로운 가설과 방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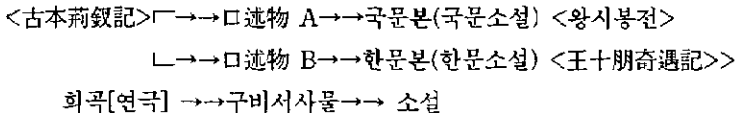
(1) 새로운 가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작인 중국 희곡 〈荊釵記〉-〈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 상호간에 존재하는 다종의 차이들, 특히 고유명사 표기에서 ‘荊釵記-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 ‘王十朋-왕시봉-王十朋’, ‘錢貢元-전공원-全恭元’, ‘錢玉蓮-전옥련개사-全玉蓮’, ‘錢載和-전사화-全自夏’, ‘王士宏-왕사공-王自恭’ 등의 미묘한 차이가 왜 생겼겠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 볼 필요를 느낀다. 〈記述物〉→記述物〉의 도식, 다시 말해 〈희곡 荊釵記〉→소설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가설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口述物〉→記述物〉 다시 말해 〈희곡 荊釵記〉→희곡 줄거리의 口述物→소설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가 원천으로 삼은 것은 ‘記述物’이 아니라 ‘口述物’이었다고 보면 모든 의문이 좀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口述物〉→소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삼자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들은 의외로 쉽게 해명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口述物을 원천으로 삼아, 그 구술물을 국문으로 적은 것이 〈왕시봉전〉이고, 한문으로 적은 것이 〈王十朋奇遇記〉라고 판단하면, ‘王十朋’이 ‘왕시봉’³⁴⁾으로, ‘錢載和’가 ‘전사화’·‘全自夏’로, ‘王士宏’이 ‘왕사공’·‘王自恭’ 등의 변이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비문학 일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오로지 입에서 귀로 전달되고,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구비유통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變異란 일반

34) 국문본 〈왕시봉전〉에서 원작의 ‘王十朋(왕시봉)’을 ‘왕시봉’으로 적은 데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추정야 가능하다. 원래 이 희곡작품을 보거나 읽고서 구술할 당시에는 ‘왕시봉’이라 발화했을 테지만, 듣는 사람이, 우리 나라 작명 관습에서는 ‘시봉’이 드물다 보니, ‘시봉’으로 잘못 들어서 옮긴 결과일 것이다.

적인 양상이기도 하다. 이 가설에 따르면, <古本荊釵記>의 口述物을 국문으로 적으면서 국문본(국문소설) <왕시봉전>이, 한문으로 적으면서 한문본(한문소설) <王十朋奇遇記>가 형성되었으며,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 상호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 또는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인다. 필자의 가설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새로운 가설의 방증 자료

앞에서 제시한 필자의 가설을 방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 1531년에 이루어진 洛西居士의 <五倫全傳序>가 그것이다. <五倫全傳>은 심경호 교수가 처음 발견해 학계에 소개³⁵⁾한 작품이고 서두에 낙서거사의 서문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낙서거사의 <五倫全傳序>'이다. 주요 부분을 번역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가 보니, 한자를 모르는 민간인들이 국문을 전해가며 익혀, 노인들이 서로 전하는 이야기를 베껴 밤낮 談論하고 있다. ② 李石端 · 翠翠의 이야기 같은 것은 음설망탄하여 도무지 볼 게 없다. ③[이들 국문소설 가운데에서] 유독 五倫全 형제의 일은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였고 신하로서 충을 다하였으며, 지아비에게는 예를 지켰고 형제간에는 공순하였으며, 또 친구에게는 신의와 은혜로움이 있어, 이것을 읽으면 뜨끔해지고 울적해지니, 본연 지성에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④이 글[국문본 「五倫全傳」]은 지금 서로 다투어가며 베껴다 전해가며 익히고, 집집마다 수장해 사 람마다 읽고[외고] 있으니, 만약 그 밝힌 바에 인하여 그 좋아하는 바에 나 아가면, 인도하고 권유하기가 어찌 쉽지 않겠는가? ⑤그러나 이 글[국문본 「五倫全傳」]은 그다지 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베껴 데서 비롯되어 어휘 구 사가 아주 거칠고 이야기 서술이 뒤죽박죽이다. ⑥그래서 나는 거듭 궁리하 여, 뜻은 있으나 말이 유창하지 못한 것은 윤색하고, 말이 상스러워 도리에 안 맞는 것은 고쳤고, 중복되고 쓸데없는 말과 우스개 야비어는 모두 삭제 하였다. 이로써 언어(言)가 하나같이 바름을 얻어, 이 글을 보는 사람들로

35) 심경호, 「五倫全傳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8(서울 : 애산학회, 1989), 111~130면.

하여금 감격해 공정심을 일으키게끔 하였지, 심심풀이 농담거리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현의 가르침을 돕는 데 보탬이 없진 않을 것이다. ⑦그러므로 [내가 개작한 한문본 「五倫全傳」을] 국문으로도 번역해, 부인네 처럼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눈만 붙이면 흰히 알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대중에게 전하고자 해서이겠는가. 다만 집안 처자들과 함께 보고자해서일 따름이다.³⁶⁾〔 〕 부분은 문맥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필자가 보충·삽입한 것이며 원문자도 필자에 의한 것임)

이 洛西居士의 「五倫全傳序」를 순차적으로 해석해 보기로 하자. 당시 인기리에 유행하던 국문소설 가운데에서 ‘오륜전 형제의 일’을 담고 있는 작품들, 洛西居士 본인이 漢文으로 윤색·수정해 改作本을 만들고, 부인과 아이들도 읽도록 자신의 윤색·수정본(漢文本)의 국문번역본을 따로 만든 사실을 밝힌 것, 이것이 洛西居士 「五倫全傳序」의 大旨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위에 인용한 부분은 모두 7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바, ①은 ‘당시 노인들이 서로 전하는 이야기를 한문 모르는 민간인들이 국문으로 베껴 쓴 것(국문소설)이 존재하였고, 이 국문본을 바탕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밤낮으로 ‘담론함’을 지극한 것이다. ②는 ‘이야기를 국문으로 베껴 쓴 것’(국문소설)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작품의 예를 든 것이다. ‘이석단·취취 이야기’가 그런 경우이고 ‘음설망탄’해서 볼 게 없다고 했다. ③은 (국문소설 가운데에서)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작품 하나를 소개한 것이다. ‘오륜전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만은 孝·忠 등 五倫의 도리를 담아 독자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④는 ‘오륜전 형제의 일’을 다룬 그 글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경쟁적으로 愛藏·愛讀되었음을 증언한 것이다. ⑤는 ‘오륜전 형제의 일’을 다룬 그 책의 文體的 결함을 지적

36) 『古文書集成』 7(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804면.

①余觀閭巷無識之人，習傳諺語，歷書古老相傳之語，日夜談論。②如李石端·翠翠之說，淫褻妄誕，固不足取觀。③獨五倫全兄弟事，爲子而克孝，爲臣而克忠，夫與婦有禮，兄與弟甚順，又能與朋友信而有恩，讀之令人凜然惻怛，豈非本然之性，有所感歟。④是書時方爭相傳習，家藏而人誦，若因其所明，就其所好，則其開導勸誘之方，豈不易耶。⑤但此書出於不甚知道者所爲，故措辭荒拙，敘事舛錯。⑥余於是反覆窮究，有意而不暢於語者潤色，語俚而不合於道者釐正，凡重複浮誕之辭，淫戲俚野之說，並斥削而不載，其言一出於正，使觀是書者，有感發起敬之心，而不至於閑中戲談之具，則其於扶植明教，不爲無助。⑦故又以諺語翻譯，雖不識字，如婦人輩，寓目而無不洞曉，然豈欲傳於衆也。只與家中妻子輩觀之耳。

한 것이다. ⑥은 '오륜전 형제의 일'을 다룬 그 글의 문체를 洛西居士 본인이 윤색·개작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⑦은 국문만 아는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漢文 윤색·개작본의 國文 번역본을 따로 마련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이 글에서 '오륜전 형제의 일'을 다룬 작품을 소개하면서 '獨'이란 어휘를 구사한 것을 보면, ②와 ③은 독립적인 화제가 아니다. 둘 다 ①에서 지적한 '무식한 사람들이 국문으로 배긴 작품들의 사례'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④와 ⑤의 내용도 그 점을 방증한다.

그간에 밝혀진 것처럼, 원작 『오륜전비기』(중국 회곡)와 현전 한문본 <五倫全傳>간에는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는바³⁷⁾, <오륜전비기>를 모본으로 <五倫全傳>이 나왔다면 해명할 수 없는 차이점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고유명사와 관직명 표기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이다. 화살표 앞의 것이 <五倫全備記>, 뒤의 것이 <五倫全傳>의 경우이다.

㉠ 주인공의 성: 伍→五 ㉡ 등장인물의 이름1: 張打油→張大有 ㉢ 등장인물의 이름2: 施善教→申善教 ㉣ 지명: 府州→富州

이와 같은 고유명사 표기에서 확인되는 차이야말로 위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해석처럼, 만약 洛西居士가 원작 『五倫全備記』를 저본으로 삼아 그 윤색본을 만들었다면 이런 차이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변안하려는 의도였다면 성명을 완전히 바꿨어야지 이런 정도로 발음상의 유사성을 전지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난 것일까? 그것은 <五倫全傳序>의 ①문장에서 말한 대로, '노인들이 서로 전하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이를 국문으로 배긴 국문본 <五倫全傳>을 저본으로 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로 보면 쉽게 이해된다. 구비유통의 상황에서는 입에서 귀, 다시 입에서 귀로 전하는 과정에서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등의 변이는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³⁸⁾

37) 이들 차이에 대해서는 심경호, 오수경, 성호경 교수의 앞 논문들에서 밝혀 놓았다.

38) 심경호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낙서거사가 ⑦의 국문본 <五倫全傳>을 만들기 전에 내놓은 한문본 <五倫全傳>의 저본(본문에서는 '오륜전 형제의 일'이라 표

이처럼 낙서거사의 <五倫全傳서>의 내용을 통해,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의 상관관계 또는 형성과정 문제를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알아낼 수 있다. <五倫全傳>의 형성과정은 <口述物→소설>이란 도식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처럼, 국문본 <왕시봉전>과 한문본 <王十朋奇遇記> 및 그 원작인 중국 희곡 <荊釵記>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해명이 좀더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五倫全傳序>는,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가 모본 <古本荊釵記>의 口述物을 기록·정착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필자의 가설을 방증하는 한 자료라고 평가한다.

IV.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차후의 과제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는 대단락 및 소단락의 양상에서 <古本荊釵記>계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해 <古本荊釵記>의 거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이루어졌음이 확실해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이지만 단 한 개의 소단락에서는 비록 결과적이긴 하나, <原本荊釵記>의 요소인 '전공원의 재등장' 화소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왕시봉전> · <王十朋奇遇記>와 원작 <荊釵記(古本荊釵記)>를 비교한 결과, 삼자는 전체적인 줄거리 및 중심인물 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삼자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도 엄연히 존재한다. 장르적인 차이, 문체의 차이, 작품 분량의 차이, 사건전개와 등장인물의 복잡성 여부의 차

현함)을 중국 희곡 <오륜전비기>로 단정하였다. 낙서거사가 중국 희곡 <오륜전비기>를 읽고 나서, 매력을 느껴 이를 한문소설로 개작하고 다시 국문으로도 번역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위에서 지적한 미묘한 차이점들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필자는 이 문제만을 자세하게 다룬 원고를 별도로 작성해 2001년 11월 10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고소설학회 학술대회에서 "<五倫全傳序>의 재해석"이란 제목으로 구두발표한 적이 있는바, 학회지를 통해 근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왕시봉과 손여권의 관계에서 보이는 차이, 왕시봉이 옥련과 삼봉하기 직전 부임하는 지역의 차이가 있다. 이 점은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가 <古本荊釵記>의 계열이면서도 상호간에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를 비교한 결과, 주요동장인물의 성명 표기, 지명 표기, 전옥련 養母의 존재 여부, 손여권과의 혼사를 강요하던 주체, 왕시봉이 과거 보러 갈 때 장인(錢貢元)의 도움을 받은 여부, 승상의 作奸의 유무, 왕시봉의 처음으로 임명된 관직, 전옥련의 투신 후 왕시봉 모친의 상경 유무, 전옥련과 왕시봉이 재 지낸 장소, 계모에 대한 권선징악적인 결말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古本荊釵記>·<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의 상관관계를 타진해 본 결과, 기존의 가설들로는 여전히 해소할 수 없는 의문들이 존재함을 알았다. 이에 필자는 소설본의 작가들이 작품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기존의 통념과는 다르게 記述物이 아니라 口述物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古本荊釵記>를 이야기로 구술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를 국문으로 기록 정착한 것이 <왕시봉전>이요, 또 하나의 口述物을 한문으로 기록 정착한 것이 한문본 <王十朋奇遇記>라는 가설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古本荊釵記>의 口述物을 국문으로 적으면서 국문본(국문소설) <왕시봉전>이, 한문으로 적으면서 한문본(한문소설) <王十朋奇遇記>가 형성되었으며, <왕시봉전>·<王十朋奇遇記> 상호간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 또는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인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Wangshibongjeon〉, 〈Wangshippoongkioogi〉, and 〈Hyungchagi〉

Yi, Bok-kyu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ing <Wangshibongjeon> and <Wangshippoongkioogi> with their original <Hyungchagi>, the author found out that the three works agree with little variation on the overall plot and the main characters. However, there are several important differences: generic difference, stylistic difference, the amount of the work, the complexity of plot development and characters, the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angshibong and Sonyeogwon, and finally the name of the place to which Wangshibong was commissioned before he had encountered Okreon. This suggests that <Wangshibongjeon> and <Wangshippoongkioogi> should fall into the line of the old-version <Hyungchagi>, yet with speci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Second, differences are also found between <Wangshibongjeon> and <Wangshippoongkioogi>. The two works differ in the names of main characters, names of places, the existence of Jeonokreon's step-mother, the character who forced the hero to marry Sonyeogwon, the existence of help from the father-in-law(Jeongong) when the hero set out to take the official exam, the existence of manipulation by the prime minister, the official title that was first assigned to the hero, whether the hero's mother came to the capital after the drowning of Jeonokreon, the name of the place where Wangshibong and Jeonokreon had a sacrificial warship, the existence of good-guy-bad-guy fate to the step-mother, etc.

Third, based on the comparisons between <Wangshibongjeon> and <Wangshippoongkioggi> and <Hyungchagi>, the author tried to determine their mutual relationship but realized that, if we accept the existing hypotheses, there are some mysteries yet to be solved. With this in mind, the author assumed that the source of the variants would not have been a written work, as has been known so far, but an oral work, which turned out a powerful breakthrough. A new hypothesis is that from the many oral transmissions of the old-version <Hyungchagi>, <Wangshibongjeon> settled down as a Korean version while <Wangshippoongkioggi> was established as a Chinese version. It could be schematized as follows:

